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기준 및 품질규격 평가개선 연구

Improvement of Evaluation for the 'Public Announcement for Environment-friendly Organic Materials List and Quality Standard'

김혁수*, 유종희, 이상민¹, 김계훈

Hyuck-Soo Kim*, Jong-Hee Ryu, Sang-Min Lee¹, Kye-Hoon Kim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원예학과

Department of Environmental Horticulture, University of Seoul, Seoul 130-743, Korea

¹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¹Department of Agro-food Safety,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Suwon 441-707, Korea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해 유기농산물 생산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기농업의 관심증대는 유기농업에 사용되는 자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7조에 따른 별표1에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이 허용된 자재 119종을 명시하였다. 또한 이를 원료로 한 친환경유기농자재에 대해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기준 및 품질규격'에 따라 제품을 평가하여 친환경유기농자재목록에 등재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친환경유기농자재 등록을 위한 안전성 평가항목을 유럽에서 적용하고 있는 유기농자재 목록공시를 위하여 요구되는 FiBL(스위스 국제유기농업연구소)의 평가항목과 미국 OMRI(미국 유기농자재 평가원)의 평가항목을 비교하여 도입이 가능한 항목을 검토, 제안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조사 결과는 친환경유기농자재 평가항목의 국·내외 기준 평가와 친환경유기농자재 평가의 국제규격 부합도 평가, 두 가지로 구분되며, 친환경유기농자재 평가항목의 국·내외 기준 평가 결과 선진국의 평가항목에 비해 평가항목들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검토과정이 서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평가에도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OMRI 및 FiBL의 평가항목 중 국내에 도입 가능한 항목을 수집하여 평가항목 개선방안(표 1)을 제시하였다.

국제규격 부합도 평가 결과 친환경유기농자재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분산으로 인해 생산자 및 수요자가 자재 등록 및 사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미국 OMRI의 경우 자재를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검토하는 절차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기관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평가결과에 대해 수요자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 환경위해성 및 독성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 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올바른 관리를 위한 자재 종류별 최소한의 담당 전문가 배치가 필요하다.

주제어: 유기농자재,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OMRI, FiBL

연구자 연락처: mint1125@uos.ac.kr 02-2210-2967

표 1.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개선방안

문제점	개선방안
<p>국내 유기농자재 평가항목이 선진국의 평가항목에 비해 부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소비료의 존재 형태 명시 - 최종 상품의 조성비 명시 - 작물에 대한 효과시험 기간 및 조건 명시 - 유해성분 기준 제시 - 물리·화학적 반응 평가 - 원료대체가능여부, 원료부존량 제시 - 저장기간, 조건 및 자재관리 제시 - 주변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평가
<p>유기농자재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분산</p>	<p>‘친환경농자재 목록공시제’와 관련된 상위법의 필요한 항목을 유기농자재 평가에 맞게 일목요연하게 정립해야 함</p>
<p>전문기관 및 전문인력 부족</p>	<p>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과 평가과정이 서류심사로만 이뤄진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친환경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정부에서 투자를 통한 유기농자재 관련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자재별 전문가를 배치하여 충분한 평가기간동안 기관내부평가를 통해 제품을 심사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야 함</p>